

서지혜·조정석·공효진·고경표(왼쪽부터)



# “질투와 양다리는 인간 본능 아니야?”

### SBS 새 수목극 ‘질투의 화신’ 공효진·조정석의 유쾌한 로맨스

SBS TV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은 방송사 보도국을 배경으로 한 여자 때문에 질투에 눈먼 남자의 이야기다.

독기 가득한 치정 멜로드라마가 아닌, 유쾌함과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점에서 부담 없는 작품이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진 공효진과 ‘파스타’(MBC·2010)의 흥행을 이룩한 서숙향 작가가 다시 손잡았다는 점에서 눈길이 절로 간다.

공효진은 방송국 기상캐스터에서 아나운서로 ‘신분’ 상승을 꿈꾸는 31살 표나리로 등장한다.

표나리는 3류 대학 출신으로 돈도 백도 없고 믿는 건 몸품이 하나뿐인 생활력 강한 인물. 소꿉친구로 시작해 기상캐스터가 된 뒤 아나운서를 꿈꾼다.

구궁궁 같은 방송국에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의 꿈과 사랑을 쫓는 표나리는, 지금까지 시청자들로부터 상쾌한 웃음과 공감을 끌어냈던 공효진표 여주인공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블리’(공효진과 러블리를 합친 별명) 공효진은 “(지극히 보여준)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처럼 뒤에서 상사 험담도 하고 해코지도 복수도 하는 여성”이라

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작품은 상대에게 별로 마음이 없다가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좋아하게 되는 남녀 간의 원초적인 질투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양다리를 걸치는 역이라 여장관리녀로 욕을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여자가 20대를 넘기면 이 남자가 좋을지, 저 남자가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감정인데 드라마 때문에 미화돼선 안되고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효진은 “작가님은 파스타 때처럼 공블리(공효진+러블리)로 돌아와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처럼 연기해도 괜찮을지,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돼 출연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표나리 때문에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는 5살 연상의 방송기자 이화신 역은 조정석이 맡았다.

“우리 드라마에서는 화신의 질투를 눈여겨봐 달라”는 공효진의 주문처럼, 조정석은 “질투로 똥똥 똥 똥 인간상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석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특종 : 량첸살인기’에 이어 2번째로 기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기자라는 직

업 자체가 유별난 이화신 캐릭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화신의 생각과 개념 같은 것들이 캐릭터 형성에 도움이 됐어요. 이화신이 평상시 방송국에 동료 기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남성 우월주의적 태도를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주연 배우들이 유독 다른 연기자들보다 어울림이 좋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 원래 공효진의 팬이었다는 조정석은 “흔히 말하는 인물들의 ‘케미’(화학작용)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공기가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달린 것 같다”고 설명한 뒤 “공효진 씨, 사랑합니다”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사각 관계의 다른 두 축은 재벌 3세 고경원 역의 고경표와 아나운서 홍혜원 역의 서지혜가 담당한다.

서지혜는 ‘파스타’뿐 아니라 ‘미스코리아’ 등 전작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강조해 왔다.

공효진은 “‘질투의 화신’도 ‘파스타’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스러운 여자와 멋진 남자 이야기”이라며 “하지만 보도국 선배들의 이야기 등이 더해지면서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됐다”고 소개했다.

연출: 박희진

## 음악예능 1위 복면가왕



### 지상파 3사 비교 지지율 52.6%

지상파 방송 3사 음악예능 중 시청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MBC의 ‘복면가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수도권 거주 13~59세 49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MBC ‘복면가왕’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6%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SBS ‘판타스틱듀오’(15.7%), KBS 2TV ‘불후의 명곡’(9.8%), MBC ‘듀엣가요제’(8.4%), SBS ‘신의 목소리’(7.5%) 등이 뒤를 이었다.

출연자가 가면을 쓰고 나와 노래를 부르면서 서바이벌 대결을 펼치는 형식의 ‘복면가왕’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포맷·형식이 마음에 들어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다.

‘불후의 명곡’과 ‘듀엣가요제’는 방송에 나오는 노래가 좋아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33.6%, 23.8%로 나타났다.

연출: 박희진



## 백종원 새 예능 ‘먹고 자고 먹고’

### tvN 내달 23일 방영 ... 말레이시아서 첫 요리

시청률을 몰고 다니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또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tvN은 백종원이 해외로 나가는 ‘먹고 자고 먹고’를 다음 달 23일 밤 9시 15분 첫선을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삼시세끼 고장편’ 후속인 ‘먹고 자고 먹고’는 1편으로 말레이시아 쿠엣에서 백종원이 현지의 재료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먹고 자고 먹고 쿠엣편’을 방송한다.

사이니의 온유와 다이아의 정채연이 동행한다.

tvN과 tvN 아시아가 공동 제작하는 ‘먹고 자고 먹고’는 말레이시아 쿠엣을 시작으로 동남아를 여행하며 요리를 선보인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등지에서 동시방송 예정이다.

제작진은 “말레이시아 쿠엣이라는 아름답고 낯선 환경에서 ‘요리 외교관’ 백선생이 선보일 글로벌한 요리 지식과 레시피를 기대해달라”고 소개했다.

연출: 박희진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골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구르미 그린 달빛 (재)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12	00 KBS 뉴스12	05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감성애니 하루	05 루키	20 문화사색(재)	55 유럽의 해안선
2	00 2016 리우 올림픽 결산특집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5 TV블로그 골지락 10 영재 발굴단(재)
3	00 올림픽 기획 가요무대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토크? 토크? 토크스쿨 55 파워 배틀 외치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푸리가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골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10	00 4차 산업혁명 특별기획 2부작 (7계와의 대결)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제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결작다큐 태평양전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생영어 (Unit 127. 청천과 불만)	09:30 원더볼츠 (라이브 토크 부모)	<학교 가는 길?> 13:05 EIDF 2016 (스포츠 키즈-바이크 챔피언)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갯바위 미역 채취)
05:30 건강한아침 (효과적인 운동방법 - 관절운동)	10:30 한국기행(재) (여름의 맛 2부)	13:35 EIDF 2016 (상냥한 엘리스)	20:40 다큐 오늘 (태국의 소싸움)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페루 맛기행 일과 맛을 찾아서)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녹두밥과 떡대무침. 오이고추무침)	14:35 EIDF 2016 (그림자 속에서)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2부 바벨투아프 섬)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노르웨이를 달리다 2부 트롤투기를 향하여)	16:00 코코몽3	21:30 EIDF 2016 (장미의 바다-쿠르드의 여전사들)
07:00 레이디 버그		16:30 코코몽 다코(재)	23:05 EIDF 2016 (세븐 송)
07:30 로보가 풀리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24:35 EIDF 2016 (아웃 런)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덩 유치원1~3		17:45 로보가 풀리	
08:45 코코몽 다코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09:00 코코몽3	12:00 EBS 정오 뉴스	19:00 레이디 버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3일(음 7월 21일 丁丑)	
子	48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을 써라. 60년생 성사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72년생 답답하더라도 잠자코 지켜보고 있어야 할 판세이다. 84년생 속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행동한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12, 09	午	42년생 실제로 접하면서 사실상의 가다가 잡힐 것이다. 54년생 목격하는 바가 없다면 대체해도 무난하겠다. 66년생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알차다. 78년생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40
丑	49년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써야 무리가 없다. 61년생 현재의 경제성에 구애받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라. 73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85년생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춰온다. 행운의 숫자 : 34, 95	未	43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하다. 55년생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67년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뚜렷이 있느니라. 79년생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만 유효하다. 행운의 숫자 : 81, 65
寅	50년생 입장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다. 62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74년생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86년생 차례대로 실행했을 때 더 생산적이니라. 행운의 숫자 : 25, 78	申	44년생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과를 보게 된다. 56년생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실행해야 작용력이 크다. 68년생 목격 의식이 분명해야만 한다. 80년생 즐겨 쓰는 방법대로 이행해야 실수하지 않으느니라. 행운의 숫자 : 64, 98
卯	51년생 기초가 되는 저변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3년생 잘 되어 있으니 무경만 열면 된다. 75년생 한계를 넘어선다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드러난다. 87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0, 49	酉	45년생 급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7년생 가법지 않아야 면액하리라. 69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81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행운의 숫자 : 38, 69
辰	40년생 선호하라. 52년생 표면적인 현상으로부터 판단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번고를 낳을 것이다. 64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76년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88년생 목표로 하였던 바를 성취한다. 행운의 숫자 : 56, 39	戌	46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58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70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 82년생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8
巳	41년생 집착하지 말라. 53년생 기존의 면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니라. 65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하라. 77년생 불길한 기운이 보이니 조심해야겠다. 89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이 넓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55	亥	47년생 절제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리라. 59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71년생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83년생 용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2, 0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